

# 광주동부위(Wee)센터,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꿈키움 멘토단’ 위촉식 및 사전교육 실시

### 1대1 멘토링 및 집단 멘토링 맞춤형 상담

광주동부위(Wee)센터가 지난 26일 개최된 ‘꿈키움 멘토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까지 2021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동행’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꿈키움 멘토단’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주동부위(Wee)센터와 협약이 체결된 전남대와 호남대에서 소규모로 각각 개최(전남대-오전 11시, 호남대-오후 2시)됐다. 멘토단은 전남대 및 호남대 상담 관련 전공 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8명(전남대-6

명, 호남대-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 이어 멘토단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전교육은 멘토링 활동계획 안내 및 멘토 역할 기초소양 교육으로 진행됐다. ‘2021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은 ‘개인 멘토링(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과 ‘집단 멘토링(초등학교 학생 대상)’ 등 두 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인 멘토링’의 경우 학교 적응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멘티(학생)와 멘토(대학원생) 간 1대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멘토는 ‘개인 멘토링’을 통해 멘티와 신뢰관

계를 형성하고, 멘티가 학교 내·외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집단 멘토링’의 경우 멘토들이 위(Wee)클래스 미설치 초등학교를 방문해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멘토들은 전공교수의 지도하에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행동 조절력 및 사회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학기가 시작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2021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 화순교육청,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담당자 영상 회의’ 실시

### 2021년 개선된 주요내용 중심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전달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에서는 3월 25일 관내 초·중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매뉴얼 전달 영상 회의

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1년 개선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전달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를 연결하는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민구 학교지원센터장은 “센터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맘껏 살릴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과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는 “올해 처음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아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연수가 현장에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진행되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화상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 지침 준수, 방과후학교 추진 체계 및 운영 방향, 예산 사용, 돌봄교실 추진 배경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전달과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별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보성교육지원청, 혁신과 창의적 행정

### 위한 행정실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26일에 관내 지역 초·중·고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연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내업체와 교육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교육도 함께 이뤄져 큰 의미가 있었다.

역량강화 직무연수는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대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교육이 이뤄졌다. 이어서 보성교육지원청의 각 팀장들의 주요업무 및 전달교육이 이뤄졌으며, 2020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전달도 이뤄졌다. ‘소통과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이뤄진 인문학 강의를

마지막으로 직무연수는 끝이 났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조성초 강성석 행정실장은 “오늘 역량강화 직무연수는 평소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청렴 교육 및 인문학 강의로 구성되어 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으며 보성남초 조덕환 행정실장은 “오늘 교육을 토대로 교육 현장의 다양한 갈등상황에 이를 접목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성교육지원청 김한관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들의 노고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성교육지원청은 원만한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나주교육지원청,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 다짐

나주교육지원청교육청(교육장 김영길)은 25일 나주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날 영상회의는 나주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교(원)장, 교감, 행정실장 등 113여명이 참석해 지역업체 구매 대책 방안을 공유하였다.

특히, 일선학교 교감까지 참석 범위를 넓혀 모든 교직원들이 지역업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카드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 의무사용 안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우선구매, 학교장터·전남상사·납도장터 등 지역업체 소품물 적극 활용 등 각

기관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안내하고 적극 이행토록 촉구하였다.

김영길 교육장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업체 구매 촉진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 무안교육청, ‘다문화는 황금알 낳는 거위다’

###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운영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3월 25일 무안영재교육원에서 관내 유·초·중·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존감 향상 및 진로지도를 주제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라남도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다사랑 행복 나누기> 연계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선착순 20명의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여러 나라 출신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고, 아버지 7분이 함께 하여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원광대학교 김대호 교수는 “여러분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다.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정에서 꾸준히 가르쳐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자녀의 강점으로 키워 관련 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